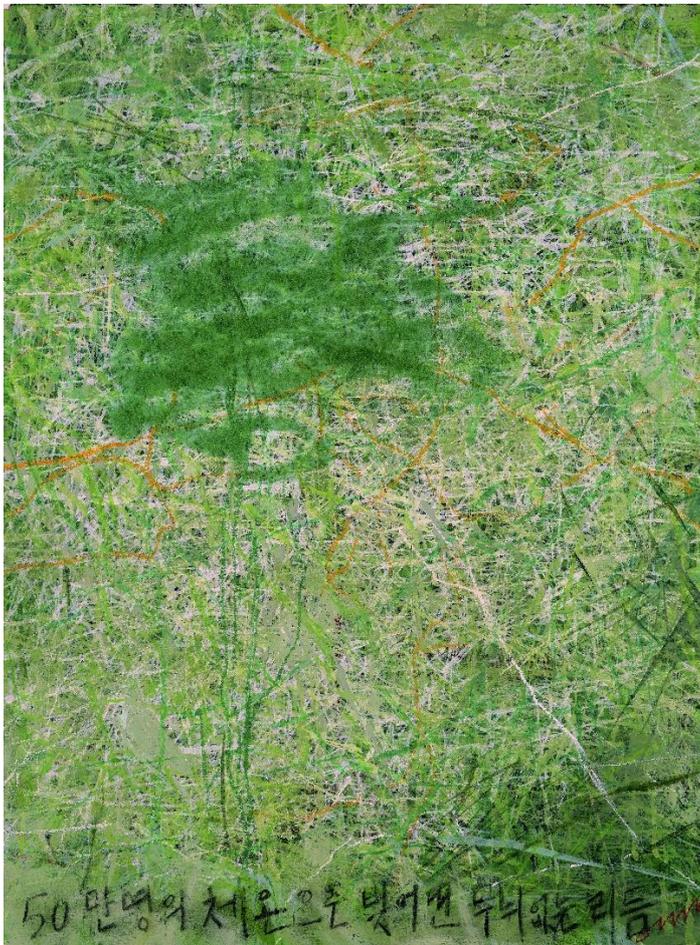


엄정순 개인전
《보푸라기 - 촉각적 사건》



무늬없는 리듬 1-1, 2025, 종이에 아크릴릭, 울, 76x56cm

전시제목 : **엄정순 개인전 《보푸라기 - 촉각적 사건》**

전시기간 : 2026년 2월 25일(수) – 2026년 3월 28일(토)

전시장소 : 학교재 본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50)
학교재 오룸 (online.hakgojae.com)

출 품 작 : 설치, 조각 및 회화 39여 점

○ 담 당 이주연 juyeonlee@hakgojae.com

○ 문 의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60225-20260328_엄정순, 보푸라기 - 촉각적 사건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26년 2월 25일(수)부터 3월 28일(토)까지 엄정순(b. 1961)의 개인전 《보푸라기 - 촉각적 사건》을 연다. 엄정순은 시각장애인 미술 교육 프로젝트를 이끌어오며 '보는 것'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탐구해왔다. 약 천 권의 점자책 설치와 함께, 대표작 <코없는 코끼리>의 조각 및 회화 작업을 선보인다. 점자책과 소형 작업은 시각에 의존해온 기존의 감상 방식을 넘어 감각의 다양성과 인식의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남는 흔적을 통해 '본다'는 행위의 본질을 다시 사유하게 하며, 손끝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감각의 진동은 촉각과 청각, 신체 전반의 감각으로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킨다. 이번 전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시각 중심적 관념을 흔들며, 감각과 인식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장을 제안한다.

2. 전시 주제

우리는 오랫동안 시각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감각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위계가 형성되어 왔다. 엄정순은 보이지 않는 감각의 층위를 드러내기보다 우리가 익숙함 속에서 놓쳐온 감각의 작동 방식을 호출한다.

작가는 촉각을 세계와 신체가 만나는 가장 직접적인 경험을 제시한다. 손끝에서 시작되는 접촉은 단순한 감각적 자극을 넘어 신체 전체로 확장되며, 감각은 하나의 사건으로 형성된다. 촉각은 대상을 일정한 거리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달리, 접촉을 통해 대상과 신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적 경험으로 작동한다. 여기서 '감각'은 대상을 인식하는 수단이 아니다.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제안된다.

2023년 광주비엔날레에서 비롯된 이번 전시의 주요 모티프로 등장하는 '보푸라기'는 신체적 접촉에 의해 생긴 결과물, 즉 촉각적 사건이다.

보푸라기는 반복된 마찰 속에서 우연적으로 형성되는 미세한 잔여물로 의도된 형상이나 명확한 이미지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는 제도적 기록이나 언어로 포착되지 못한 경험이 남기는 흔적을 상징한다. 작가는 이 미세한 잔여를 통해 감상이 단순히 이미지를 해석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체적 경험과 시간의 축적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라짐과 흔적의 관계 또한 중요한 층위로 다뤄진다. 사라진다는 것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남는 과정으로 제시된다. 작품 속에서 발생하는 감각적 경험은 명확한 이미지나 서사로 환원되지 않은 채 신체에 머문다. 이는 언어와 시각 중심의 기록 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기억의 방식이다.

작가는 선명한 시각적 대상이나 단일한 해석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관객이 공간 안에서 멈추고, 더듬고, 방향을 재설정하는 경험을 허용한다. 익숙한 인식의 구조를 잠시 유예시키며, 감각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조건을 다시 사유하도록 이끈다.

이 전시는 감각의 위계를 재고하며, 우리가 어떤 감각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신뢰해왔는지를 질문한다. 《보푸라기 - 촉각적 사건》은 유동적인 감각의 순간들을 따라가며,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경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자리로 남는다.

3. 작품 소개



무늬 없는 리듬 1-1

2025

종이에 아크릴릭, 울

76x56cm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주요 작품인 <무늬 없는 리듬>, <코끼리의 어느 모서리>, <흑연으로 쓴 코끼리-기록되지 않은 도서관>은 작가가 오랫동안 진행해온 감각 탐구의 연속선상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제시된다. 세 작품은 촉각, 마찰, 흔적, 그리고 사라짐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신작 <무늬 없는 리듬>은 2023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였던 참여형 설치 작업 <코없는 코끼리>의 이후를 잇는 대표적인 회화 작업이다. 천, 양모, 철판으로 제작된 코끼리 조각은 당시 관객의 신체적 접촉을 전제로 한 촉각 중심의 설치물이었다. 약 50만 명의 관객이 작품을 만지고 스치며 남긴 체온과 마찰은, 시간이 지나며 양모 표면에 '보푸라기'라는 물질적 흔적으로 축적되었다.

그 흔적을 회화의 재료로 다시 소환한다. 관객의 손끝에서 발생한 미세한 접촉의 결과는 의도된 형상이 아닌 '무늬 없는 리듬'으로 남는다. 여기서 리듬은 반복된 접촉과 시간의 누적을 의미하며, 무늬 없음은 시각적으로 의미화되지 않은 감각의 상태를 가리킨다. 작가는 이를 통해 감상이란 시각적 해석 이전에 이미 신체적 경험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코끼리의 어느 모서리 3

2023-2025

울 테피스트리, 메시

60x40x20cm

<코끼리의 어느 모서리>는 <코없는 코끼리> 조형을 해체한 일부로, 하나의 독립된 오브제로 제시된다. 코끼리의 전체 형상은 사라졌지만, 그 일부는 여전히 코끼리를 연상시키는 상징으로 남아 있다. 이는 전체를 보지 못한 채 일부만을 더듬어 인식하는 상황, 즉 감각의 불완전성을 은유한다.

작품 제목에 등장하는 '어느' 라는 표현은 명확한 위치나 중심을 거부한다. 이는 시각 중심의 세계가 요구해온 완결성과 전체성에 대한 질문이며, 동시에 부분적인 인식 역시 유효한 경험임을 선언하는 태도다. 작가에게 코끼리는 해체되었음에도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상징으로 남으며, 인식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찰나 2001-1

2026

점자교과서 1,000권, 알루미늄

프로파일, 선풍기

250x1000x890x800cm

전시장 내부에는 천 권이 넘는 점자책이 설치되어 있다. 바람에 의해 각기 다른 페이지가 펼쳐진 점자책들은 시각적으로는 읽히지 않지만, 촉각을 통해 접근 가능한 텍스트로 존재한다. 이 설치는 읽는 행위가 반드시 눈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자연스럽게 점자 아트북 <흑연으로 쓴 코끼리-기록되지 않은 도서관>으로 파생된다. 작가는 점자책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점자책을 정보 전달의 매체를 넘어 하나의 조형적, 개념적 작품으로 전환시킨다. '기록되지 않은 도서관'은 존재하지만 가시화되지 못한 지식과 감각의 저장소를 의미한다. 사라짐의 과정을 기록하려는 시도이자,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태도에 대한 선언이다.

4. 작가 소개

엄정순(b. 1961)은 충주 출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후 독일 뮌헨대학교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 이후 건국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교수를 역임했다. 1996년부터 사단법인 '우리들의 눈'을 설립하여, 맹학교 미술교육 등 출판, 전시, 아트 프로젝트, 예술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보푸라기 - 촉각적 사건》(2026, 학교재, 서울), 《시그널 온 세일: 시간의 주름》(2025, 학교재, 서울), 《흔들리는 코끼리》(2024, 두손 갤러리, 서울), 《엘리펀트 워크》(2015, 앤트러사이트, 서울), 《엄정순 展》(2007, 샘터화랑, 서울) 등의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열 개의 눈》(2025,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잃어버린 줄 알았어!》(2024, 학교재, 서울),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개》(2023, 광주비엔날레, 광주), 《코끼리 주름 펼치다》(2015,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블루메미술관, 파주) 등이 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예술의전당, 삼성문화재단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5. 작가 약력

엄정순

1961 충주 출생

학력

1988 독일 뮌헨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1983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주요 개인전

2026 보푸라기 - 촉각적 사건, 학교재, 서울

2025 시그널 온 세일: 시간의 주름, 학교재, 서울

2024 흔들리는 코끼리, 두손 갤러리, 서울

2015 엘리펀트 워크, 앤트러사이트, 서울

2010 엄정순 展, 신세계백화점 스토어 아트월 갤러리, 서울

2007 샘터화랑, 서울

2006 갤러리 인, 서울

2003 크레디 리요네 아트북 수상기념전, 학교재, 서울

1999 갤러리인, 서울

1997 아키라 이케다 갤러리, 나고야, 일본

금산갤러리, 서울

1996 나인갤러리, 서울

1994 토탈미술관, 양주

스페이스 샘터, 서울

- 1993 갤러리 서미, 서울
- 1990 갤러리 인, 서울
- 1989 갤러리현대, 서울

주요 단체전

- 2025 열 개의 눈,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움직이다, 상상하다, 다르게 보다!, 서울아트책보고, 서울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서울
- 2024 잃어버린 줄 알았어!: 엄정순, 당 이, 시오타 치하루 3인전, 학고재, 서울
- 2023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개, 광주
- 2015 코끼리 주름 펼치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블루메미술관, 파주
- 2012 세라믹스 코윈, 아트선재센터, 서울
- 2010 부유하는 꽃잎들, 신세계 갤러리, 서울
- 2008 그림의 대면, 소마미술관, 서울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부산
- 2007 모란 이후의 모란,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2006 차도살인지계, 카이스갤러리, 서울

수상

- 2025 대한민국그림책 장관상
- 2023 박서보 예술상, 제14회 광주비엔날레
- 2021 문화다움기획상 131
- 2003 크레디 리요네 아트복상

출판

- 2024 『코끼리를 만지면』, 우리학교
- 2018 『세상이 어떻게 보이세요』, 샘터
- 2008 『점이 모여모여』, 창비

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외교부, 서울
- 주한미국대사관, 서울
- 미술은행, 서울
- 삼성문화재단, 서울

학고재

Hakgojae
Gallery

03053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학고재 보도자료 2026. 2. 26 / 작성자: 이주연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예술의전당, 서울

고려대학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삼성화재, 서울

서울삼성병원, 서울

신세계백화점, 서울

포스코 글로벌 R&D센터, 인천

현대산업개발, 서울

거제삼성호텔, 거제